

“기품있는 청자에 담아 남도의 맛 뽐냈어요”

한국음식박람회 국제요리대회 1위 담양 향원당팀

‘단아하면서도 세련되고, 기품있으면서도 맛을 갖춘 한식의 향연’.

담양 남면에 위치한 향원당(香源堂)팀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음식박람회 박람회 및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적인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3개 부문에 모두 15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향원당팀은 ‘비색과 백색의 식문화 향연’

이라는 주제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반가음식과 음청류를 청자와 백자, 은상감 및 빗자유기에 기품있게 담아내 맛과 멋을 한꺼번에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남도의 맛’이라는 주제로 선보인 특별기획전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말린 죽종, 굴비, 서리태두부, 담양갈비와 죽순을 곁들인 나물밥, 쌀국수꼬리곰탕, 전유어 등을 창의적인 조리법과 풍성한 상차림으로 선보여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8명의 팀원을 이끈 향원당 이양수(여·70) 원장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전성기로 자연스레 육류를 멀리하고 채문화가 발달했다”며 “전통 차와 유과, 감장 등 다식류를 비색청자류에 담았고, 그와 곁들여 다양한 들 풀을 이용한 장아치류로 그 시대의 음식 문화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향원당은 조선시대의 음식문화를 고려시대의 문화가 완성·정착된 시기로 해석해 고기와 생선 등을 전통기법으로 조리해 영양을 고려한 음식들로 구성, 조선인들의 지혜를 담아냈다.

향원당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전통문화

교육원을 열어 한식 조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다양한 감사진이 기초반과 전문가 과정으로 나눠 전통, 궁중, 사찰 음식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식의 기초가 되는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직접 담가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음식조리학과 교수를 지낸 이양수 원장이 있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다도문화와 한식 등 전통문화를 연구해왔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28명의 팀원도 이 원장의 제자이다.

이 원장은 “향원당의 의미처럼 전통과 문



화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식을 연구·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식의 맛과 멋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최홍식 교수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선정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최홍식 교수가 세계수준의 프론티어 연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11년도 리더연구자 지원사업(일명 창의적 연구 사업)’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국 대학에서 운영되는 수만 개의 자연과학·공학 연구실 중 상위 0.1% 연구실만 선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9년간 정부로부터 58억5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 합창환 주사 장애인의 날 표창

전남도 노인장애인과 합창환(46) 지방사회복지주사가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합 주사는 지난 15년 동안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T/F팀을 구성하여 전국 최초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또 장애인 자립마을인 ‘무지개마을’ 조성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채춤에 환우들 어깨가 들썩~

빛과 소금봉사회 소록도병원 위문공연

사슴을 닮은 작은섬 소록도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지난 18일 고흥군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 소극장에서 광주빛과소금자원봉사회(회장 최공식)의 길놀이 공연이 시작되자 100여 명의 한센인 환우들의 얼굴에 차츰 미소가 찾아왔다. 부채춤, 판소리, 색소폰 공연에 이어 김희자 총무의 각설이 공연이 이어지자 환우들은 어깨를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봉사회 회원 40여 명은 이날 2시간 동안 가족, 친구, 자식으로 환우들과 함께



했다. 환우들은 회원들의 춤과 노래에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랠다.

이날 ‘국립소록도병원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주최한 최공식(64) 회장은 “몇 달 전까지 만 해도 매일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의 머리도 잘라주고 구두도 닦아줬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방문하지 못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빛과소금봉사회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위안잔치와 함께 장애인 차량봉사 활동, 어린이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

이상호·정해만·오동찬씨 조선대 ‘치호인 상’



이상호·정해만 조선대 교수(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이 최근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제정한 ‘제2회 자랑스러운 치호인 상’을 수상했다.

학술 부문에 선정된 이상호 교수는 대한치의학 교육학회 부회장과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소아치과학회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선대 치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 공중보건으로 부임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7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공로 부문에 선정된 정해만 교수는 1974년부터 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구강생물학연구소장, 일본 지바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으며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희희기자 chae@kwangju.co.kr

차 문화 대중화 앞장 동국대 김상현 교수 초의문화제 올해의 초의상

우리나라 다문화의 중흥조인 초의선 대의사 범각 주지 스님, 남대인회 유행식 회장은 19일 해남대인회 사무실에서 초의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0회 초의상 수상자로 김상현(65) 동국대 교수가 선정됐다.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공동위원장



중화에 앞장섰다.

경남 합천출신인 김 교수는 차(茶)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및 학회지에 ‘한국의 다사’, ‘생활 다사’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차 연구와 차 문화 대

특히 지난 1978년부터 대학에 출강하면서 대학과 교육기관의 차 강의를 통해 후진 양성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됐다.

‘초의상’은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차 문화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공헌한 사람을 선정, 시상해 오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동사에서 열리는 ‘제20회 초의문화제’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광주시, 공공부지 ‘해바라기꽃 심기’



광주시는 19일 광주시청 옆 공공부지에서 자원봉사자와 어린이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꽃 심기’를 위한 공공부지 해바라기꽃 심기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구-강진군 자매결연 협력 사업 추진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지난 18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강진군(군수 황주홍)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정·인적분야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동구청 제공>

광주시진동학회 금호갤러리서 정기회원전



광주시진동학회(회장 김용배)는 지난 13~19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7회 정기회원전’을 개최했다.

<광주시진동학회 제공>

아이안과-남구아동센터협 협약



아이안과(원장 이영철)와 광주 남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윤영숙)는 최근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서 남구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아이안과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잠수 교육, 스낵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포유엔터 살사동호회 회원=총장로 3가 층과 앞 터바디삼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팝스 중창단=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부음

▲박영자씨 별세 장철호(프라임경제신문 차장)·철수(남부경찰서)·정아(남구청)씨 모친상 흥영인(광주시청)씨 빙모상=발인 21일(목) 광주 미래로 21병원 장례식장. 062-450-1404, 010-6611-4699.

▲강철희씨 별세 기수·영수·미옥씨 부친상=발인 21일(목) 광주지비병원장례식장 062-675-4444.

▲문병상씨 별세 정삼·영미·정

미·선미·유미씨 부친상=발인 2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구희숙씨 별세 규석·규식·규만·규천·경순·영순·영남·영란씨 부친상=발인 21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김순희씨 별세 박영철(건설업)·영태(유치원장)씨 모친상 이명철(렌트카)씨 빙모상=발인 21일(목) 송정장례식장 2호실. 062-941-7102.

▲이하례씨 별세 허일웅·기범·순예·화자씨 모친상=발인 21일(목) 무등장례식장 21호 062-515-4488.

▲양향례씨 별세 방형만·형근·형남·형주·점숙·광숙씨 모친상=발인 20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경총씨 별세 상훈·상권·(여수한영고)·은숙·향숙씨 부친상 김대중(광주시청)·김재석(남구청)씨 빙부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현덕씨 별세 승일·상완씨 부친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행국씨 별세 경안·김경씨 부친상=발인 20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선호씨 별세 남진(자영업)·정진(회사원)·안순씨 부친상=발인 20일(수) 씨티재활병원 장례식장 1호실. 062-674-4444.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정종진 님(남/79세)
子/子婦: 정종숙 / 유미자, 영태 / 김광순
女/婿: 정선자 / 김한범, 선숙 / 전광문
안순 / 심재경
• 호실:401호
• 장지:영락공원
• 발인:4월 20일
• 연락처:227-4314

故 최희준 님(남/62세)
子/子婦: 이정수 / 박미정
女/婿: 이명진 / 최재석, 현정
• 호실:402호
• 장지:영락공원
• 발인:4월 20일
• 연락처:227-4314

故 최희숙 님(여/73세)
子/子婦: 조경철 / 김현주, 정호 / 김미자
女/婿: 조승희 / 정준영, 경희 / 박광호
• 호실:101호
• 장지:영락공원
• 발인:4월 20일
• 연락처:227-4385

故 최미희 님(여/67세)
女: 윤혜민
子: 김태경, 女: 김태희 弟: 김현철, 김성철
• 발인:4월 20일 00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5

故 김경철 님(남/38세)
未亡人: 박복순
子: 김태경, 女: 김태희 弟: 김현철, 김성철
• 발인:4월 20일 00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12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